

2022년 새해를 밝히는 첫 포스팅은, 전통의 미를 토대로 버려지는 원단들을 바느질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탄생시키는 문서현 작가님과과의 인터뷰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주제를 기반으로, 한국 전통 기법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오색 원단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계신 문서현 작가님의 작품 스토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케이옥션** 작가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서현 작가**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바느질 기법을 사용하여, 섬유 작업을 하고 있는 '바느질하는 문서현'입니다.



**케이옥션** 작가님 작업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부터 얻으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문서현 작가** 저는 아침마다 걸으면서 만나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차가워진 공기, 이슬에 젖은 풀과 흙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떠오르는 해로 인해 변화하는 하늘의 색을 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일상 속 마주하는 자연을 관찰하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다 보면, 부유했던 감정들은 어느 순간 고요히 침잠해지고 작업에 대한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좌) <개화開花\_01> 실크, 손바느질, 천연염색, 107X87cm, 2018 ©문서현  
우) <개화開花\_02> 실크, 손바느질, 천연염색, 98X80cm, 2018 ©문서현

**케이옥션** 작가님의 작품을 바라보면 고객분들 입장에서 작가님의 소재 선택에 대한 스토리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섬유 예술 분야 중에 바느질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문서현 작가** 저는 한복을 만들 때 버려지는 원단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합니다. 그 원단들은 재단을 하고 난 후에 크기가 작아 버려지는 것들이지만, 작게 조각을 내어 작품으로 만들기에는 깨끗하고 온전한 크기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 생긴 조각보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버려질 운명이던 가지각색의 보잘것없는 조각을 모아 하

나의 작품이 된 조각보를 보며, 세상에 쓸모 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은 없다는 듯 제 자신이 위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술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때 당시 사회에서 나 자신이 작고 초라한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있게 된다면 좋은 에너지를 받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조각을 잇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와 함께 공감하고 삶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쳐 힘들어지면서 순수해서 빛났던 스무 살의 ‘나’가 그리웠습니다. 천과 실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아이같이 즐거워했던 그때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보았던 나비를 생각하며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느질은 천과 천 사이로 바늘이 스치고 꿰어지는 소리에 마음이 집중되는 작업입니다. 바느질하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였습니다. 침선(針禪)은 큰 감정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서현



<나비> 모시, 손바느질, 천연염색, 180x150cm, 2016 ©문서현

**케이옥션** 작품을 통해 작가님 자신을 위로하여 주셨네요. 참 소중한 발견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질문 중 하나인데, 바느질로 제작한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도 될까요?

**문서현 작가** 전통 조각보에 주로 사용된 직물은 각종 견직물과 모시 등으로 대부분 같은 종류끼리 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각보라는 명칭에서 보이는 그대로 '보자기' 즉, 액자 형태가 아닌 천으로 된 작업물(발, 커튼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거나 자유롭게 결합된 구성미와 세련된 색상 배치를 보여주는 전통 조각보를 기본으로 삼고, 좀 더 회화에 가까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작업 구조 속에서 감상 방식의 전환, 나아가 현대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액자 형식의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한국적 미감이 서려 있지만 그 요소가 보다 낫설고 새롭게 보이길 원해, 종류가 다른 원단들로 색상 배치에 맞춰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화 같은 공예, 공예 같은 회화를 작업하여 현재와 과거가 혼합되어 형성되는 매듭 같은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호두나무 속 가을\_연작> 각 다양한 직물, 손바느질, 직물에 채색, 23X27cm, 2018 ©문서현

**케이옥션** 기억에 남는 전시나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문서현 작가** 두 번째 개인전은 대형 설치 작업이 많았습니다. 섬유 작업의 매력 중에 하나는 대형 설치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활용하여 어느 공간에 배치가 되든,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모시, 손바느질, 천연염색, 255X235cm, 2018 ©문서현



2020 CPBC TV 카톡릭 무대 작품 설치 사진 ©문서현

**케이옥션** 대형 작업 즉, 설치 작업도 많이 진행하셨는데, 작품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궁금하고, 어떤 점들이 가장 챌린징 포인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서현 작가** 전시를 할 때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대답을 할 수 없어서 항상 난감합니다. 저는 작품을 하나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장에 걸리는 작품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속해서 전체를 생각하며 작업을 하다 보니 모든 작품을 다 같이 시작하고 끝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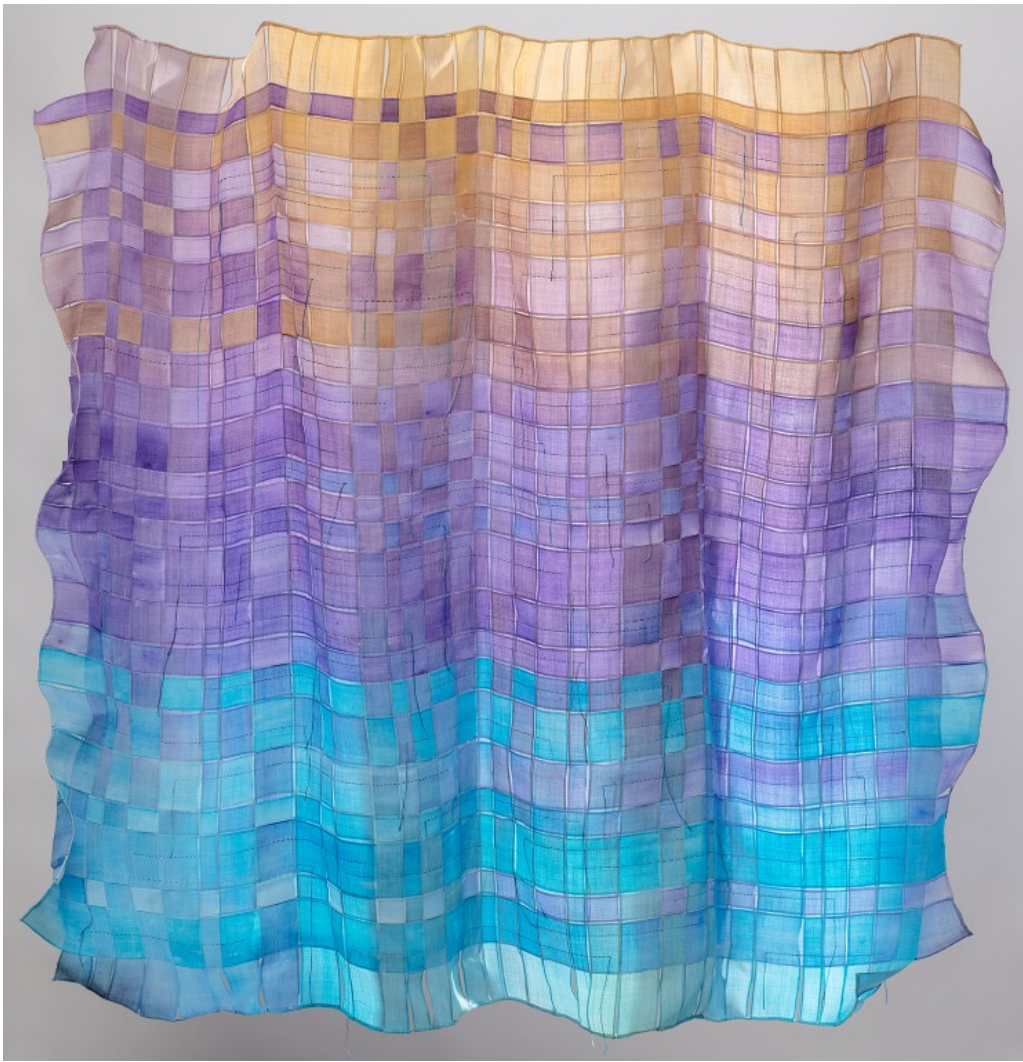
전시장에 걸쳐 있는 작품들의 완성도를 균형 있게 맞추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케이옥션** 그렇다면, 전시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따로 있으신가요?

**문서현 작가** 전시 주제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색을 담아내는 작업이었고 거의 모든 원단은 천연 염색을 하여 색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크고 작은 상념이라는 빗장에 갇힌 시선으로 자연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바라봤다. 그 사이 계절이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며 흘러갔다. 요즘 시대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잊히기 쉬운 자연의 빛깔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생각하면서 작업에 집중하였다. 나는 물 흐르듯 자유로운 자연의 형태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를 재현하여 흰 천에 물들였다. 나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의 색채들이 염료를 통해 흰 천에 켜켜이 스며들어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자연의 색을 입은 천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색감으로 탄생하였다. 나는 맑고 투명한 자연의 빛깔들이 서로 배어들고 번져 나가며 이루어내는 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갈망했다. 그리고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빛깔을 잘게 조각내어 이어가는 바느질을 했다*

- 문서현



〈그해 여름〉 모시에 채색, 손바느질, 206x145cm, 2018 ©문서현

**케이옥션** 이번엔 작가님의 달항아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보고 싶어요. 제가 느끼는 달항아리의 가장 큰 장점은 절제된 미에서 느껴지는 우아함인데요, 약간은 차갑게도 느껴지는 도자의 특성을 바느질이라는 우리의 전통 기법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오색 원단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케이옥션 고객분들께서도 감사히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욱 궁금해지는 작가님의 달항아리 시리즈에 대한 설명 및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서현 작가** 이번 달항아리 작품은 자연의 빛깔을 담아냈습니다. 저는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을 담는 마음의 향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일주일 그리고 일 년을 매일 같이 걸으며 바라본 다양한 자연의 빛깔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제 눈과 마음에 담긴 자연의 찰나를 작은 조각으로 기록했습니다. 저의 항아리 속 기록(이야기)이 각각의 빛깔을 내며 항아리 표면에 빙렬氷裂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항아리 빙렬氷裂을 따라 관람객분들이 천천히 동행하기를 바라보며 달항아리를 지었습니다.





좌) <장밋빛 인생\_03> 실크, 손바느질, 면에 채색, 114x104cm, 2021 ©문서현  
우) <옥상玉石달빛\_04> 실크, 손바느질, 면에 염색, 101x96cm, 2021 ©문서현

**케이옥션** 작품을 통해 어떤 면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고 싶으신지 알려주시겠어요?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문서현 작가** 첫 개인전 때 선보인 '나비'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을 담아 나비 날개 형태를 재현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전 '시나브로'는 '자연의 색'에서 영감을 받아서, 직접 염색하고 바느질 한 설치 위주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세 번째 개인전인 '윤슬'은 '자연의 빛'을 담아 낸 달항아리를 재현하였습니다.

다음에 선보일 작업은 2020년에 작업했던 '존재의 집' 시리즈를 더욱 확장시켜 작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시대에 보금자리인 집은 더욱 안전하고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집은 마음 편히 숨 쉬고 편안히 쉴 수 있으며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이런 시대를 겪으며 더욱더 집에 대한 애착과 제한된 바깥 활동으로 인해 향유할 수 없는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조각 지어 집이란 형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23년 2월 '예술의전당' 신진작가 후원을 받아 개인전을 작업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재의 집\_연작> 다양한 직물, 손바느질, 면에 채색, 34x45cm, 2020 ©문서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케이옥션 홈페이지](#) 또는 [케이옥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옥션 아티스트님이 Instagram을 사용 중입니다 • 케이옥션...  
팔로워 2,919명, 팔로잉 670명, 게시물 280개 - 케이옥션 아티스트(@k...  
[www.instagram.com](https://www.instagram.com)

문서현 Moon SeoHyeon

2005 경원대학교 (현 가천대학교) 섬유미술학과  
2011 HIKO MIZUNO COLLEGE OF JEWELRY, TOKYO, 슈 메이커

개인전  
2021 Artist Run Space 奇妙, 서울

2021 CICA Museum, 김포  
2019 인사아트 갤러리, 서울  
2017 갤러리 이즈, 서울

#### 단체전

2021 GSAF2021 기획전, ADM갤러리, 서울  
2021 GSAF2021\_기획전, TIPS TOWN S2, 서울  
2021 Textiles\_기획전, Artist Run Space 奇妙, 서울  
2020 緣 with Her\_그룹전, 서울 아산병원 갤러리, 서울  
2020 가가호호\_3인전, 명동 1898 갤러리, 서울  
2017 다시 봄\_그룹전, 서울 아산병원 갤러리, 서울

#### 수상

예술의전당 신진청년작가 개인전 후원 선정  
Kimyo 2021 Opencall 개인전 공모 선정  
CICA 미술관 영 코리아인 아티스트 선정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케이옥션에 있으며, 본 저작물에 인용된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저작물에 인용된 자료의 게시 중단을 원하신다면 [artist@k-auction.com](mailto:artist@k-auction.com)으로 알려주시면 즉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